

난파선생께 드리는 편지

나 운 영

금년은 모짜르트 서거 200주년이라고 해서 온세계가 떠들썩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외없이 <기념음악회>가 대대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악성 모짜르트> 서거 200주년을 기념하는 것은 조금도 나쁠 것이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나라의 <악성 흥난파> 서거 50주년을 기념하는 일에는 인색하다기 보다는 너무나 등한한 것만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달을 갑자기 <안익태의 달>로 정해 놓고 기념행사를 벌이고 있는데 정작 8월 30일에 돌아가신 선생님 -- 더군다나 돌아가신 지 50주년이 되는 이 해 이 달을 난데없이 <안익태의 달>로 정할 필요가 어디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안익태 선생은 1965년 9월 17일에 돌아가셨으니 차라리 9월을 <안익태의 달>로 정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흥난파 선생>과 <안익태 선생>을 바꿔치기한 것 처럼 느껴지니 말입니다.

1898년은 미국 작곡가 <거쉰>(Gerswin)이 탄생한 해인데, 거쉰과 우리나라의 악성인 흥난파 선생이 동갑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학교에서는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고로 우리나라 사람은 외국것이라면 무조건 숭상하는 - 소위 배외사상에 젖어있기 때문에 우리의 것을 경시하는 못된 버릇이 있으니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의 서거 5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바이올리니스트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기악곡을 작곡하셨고, 또한 처음으로 월간 잡지「음악계」를 발행하신 한편 창작소설은 물론 수많은 외국소설을 번역 출판하신 선생님의 빛나는 업적을 길이 길이 기억하면서 부끄럼 없는 후학(後學)이 될 것을 새삼 다짐하는 바입니다.

1991. 8. 30